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학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40년 역사의 법과대학이 사라진
자리에 최고를 향해 달리는 정책학과가 들어섰다.
시험 위주, 고시 위주일 것이라는 오명과 달리 배움을
즐기는 학생들과 낭만적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수님들이 모인 곳이다. 에디터 박혜지

1ST, 국내 최초의 정책 전문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는 ‘실용학풍의 계승’이라는 한양의 기치 아래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정책학과가 들어선 때는 2009
년, 교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하면서다. 다른 대학
교는 자유 전공 학과를 만드는 추세였으나 한양대학교
는 ‘더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라는 다짐과 함께 국
내 최초의 정책학과를 만들었다. Post법대를 표방하면
서도 기존에 법과대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학문
을 연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풍부한 커리큘럼이 특징이
다. 포괄적이고도 전문적인 배움을 기반으로 5년여 동
안, 정책학과는 한양대학교의 간판학과로 부상했다.
교육 비전은 사회에 도움이 될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
는 것. ‘남들과 달리, 남들보다 더 멀리’ 보는 인재들을 육
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학과의 교수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분야의 교수진이 모였다. 법학, 정
치학, 경제학, 국문학, 영문학 등을 복합적이고도 합리
적으로 가르치며 국제 정세와 다문화를 이해하는 안목
과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이곳의 재학생들은 다양한 지원과 커리큘럼을 통해 배
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또 법조인, 행정 관료, 언론
인 동문과의 멘토 결연을 통해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학과임에도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고 우수한 성과를 내
기 시작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학과, 바로
이곳 정책학과임이 틀림없다.

- 2008. 7.19. 정책과학대학 설립
- 2008. 8. 1. 조태제(법학 전공) 교수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
- 2008. 9. 1. 민찬홍(철학 전공) 교수가 전임교수로 부임
- 2008.12. 1. 서경석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수 발령
- 2009. 1.12. 황홍규 교수 대우교수 발령
- 2009. 3. 1. 우미영(국문학), 김경혜(영문학) 전임교수 발령
- 2009. 3. 1. 신입생 97명 입학
- 2009. 3.12. 정책과학대학 설립기념식 개최
- 2009. 6.23. 해외 어학연수 실시(46명)
- 2009.11.20. 멘토결연식 개최(법조인, 행정 관료, 언론인 등 동문)
- 2010. 3. 1. 최원배(철학 전공) 교수가 전임교수로 발령
- 2010. 4. 1. 정석균(경제학), 오영달(정치학), 이석환(행정학) 전임교수 발령
- 2010. 6. 27. 해외 어학연수 실시(70명)
- 2010. 9. 1. 정문식(법학) 전임교수 발령
- 2011. 6. 27. 해외 어학연수 실시(84명)
- 2011. 8. 1. 김상규(법학전공) 교수가 2대 학장으로 취임
- 2012. 3. 1.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대유 특임교수 발령
- 2012. 9. 1. 이호용(행정법), 윤성현(헌법) 전임교수 발령
- 2013. 3. 1.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동기 석좌교수 발령

09학번 선배의 입학“수능이 중요해”

수시 정책학과가 첫 신입생을 맞이한 2009년에는 먼저 ‘브레인
한양’이라는 한양대학교 수시 프로그램을 통해
70명을 선출했다. 기준은 고등학교 교과수업 30퍼센트,
비교과 20퍼센트의 비율로 선출 후 논술고사 50퍼센트로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을 갈랐다.
정시 정시에서는 수능 100퍼센트로 신입생을 뽑았다.
이를 통해 2009년 정책학과의 문을 연 정시 합격생은
총 27명. 수시와 더불어 총 97명이 입학하게 됐다.



입학금, 더 확대된 장학금 혜택

2009년에는 합격자 전원이 입학금 50퍼센트를 감면받았고 수능 언어, 외국어,
수리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과 백분위의 합이 290 이상인 학생은 100퍼센트
감면받았다. 반면 2014년에 합격한 학생은 누구나 입학금을 감면받는다.



첫 졸업생의 평점은 4.4

2012년 2월에 첫 초기 졸업생을 내놓았다. 학생의 졸업 평균 평점은
4.4점으로 표준 환산 점수로 97.5점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었다.
이후 졸출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입학,
고시 합격, 해외 취업 등 다양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4학번 후배의 입학“문이 다양해졌어요”

수시 2014년 수시는 4개 부문으로 전형을 나뉘 82명을 선출했다.
우선 학생부 기록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출하고 면접을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평가로만 100퍼센트 선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이 있다. 논리력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논술고사 50퍼센트와 학생부 종합평가
50퍼센트를 합산해 선출하는 ‘논술 전형’도 신설했다.
정시 2009년에 비해 정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비율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수능
우수자가 강세였다면 현재는 학생부도 중요해졌다. 수능 9대 학생부 교과 1대 비율로
학생을 선출하고 있다. 2014년 입시 결과, 정책학과와 성적은 학생들의 인수의탐
백분위 평균은 파이낸스경영학과를 이어 2위를 했고 입시 결과가 가장 높다는
정시 <나>군에서 1위를 기록했다.

등록금 또한 혜택 상승

2009년에는 일정 기준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전액 등록금 면제 혜택을 주고 합격자 전원에게는
절반 혜택이 주어졌다. 2014년에는 좀 더 지원이
강화돼 합격자 전원에게 등록금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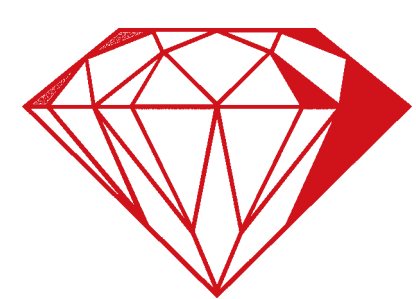
해외 어학연수

2009년에는 재학 중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했지만
2014년에는 본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교환학생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위치에서 어학연수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정책학과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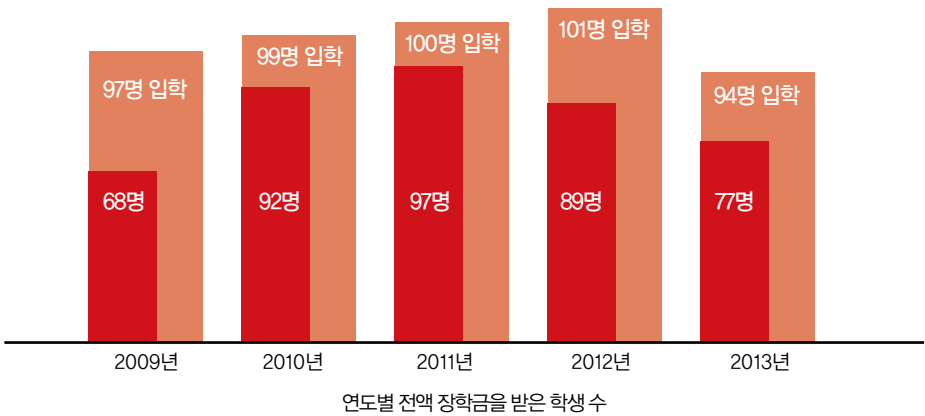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정책학과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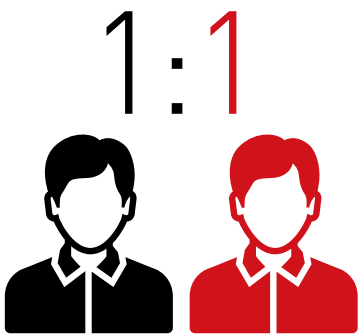
0.1%

다이아몬드학과
정책학과는 '상위 0.1퍼센트의 학생을 뽑아 상위 0.01퍼센트의 리더로 기른다'는 목표를 갖는 다이아몬드학과다. 학교에 딱 7개밖에 없는 다이아몬드학과로서 법과 경제를 모두 섭렵하는 실용 인재를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되고 있다.

50~100%



1:1 멘토 동문을 찾아
정책대 동문들은 법대의 기상을 이어받아 법조계에 몸담은 선배들과 멘토와 멘티로 만나고 있다. 멘토와의 설레는 만남을 갖는 멘토 결연식. 행정부, 사법부, 언론, 기업계 고위 인사가 자리를 빛내는 정책학과의 대표적인 인기 행사다. 벌써 다섯 번의 결연을 맺는 동안 재학생은 멘토를 통해 고민을 상담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세우고, 졸업생들은 멘티를 통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멘티들은 가끔 멘토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현장 탐방을 하기도 한다. 2011년에는 멘토 동문인 노회범 법무관이 몸담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다녀와 법무관이라는 직업을 알고 교류하며 마음의 열정을 다잡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과격적인 장학금 지원
다이아몬드학과로서 입학한 학생들에게 적게는 반액, 많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시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입학 후 매 평점 3.5점만 유지해도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 186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670만 원으로 조사됐으니 장기적인 경계 침체 속에서 학생의 부담을 더는 통 큰 혜택이자 꿈의 든든한 지원금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를 육성하는 정책학과.
그 면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정책학과의 자랑거리를 숫자 키워드로 뽑아보았다. 에디터 박혜지

시험 맞춤형 강의가 아닌 진정한 배움
정책학과의 수업은 법학적성시험 LEET, 행정고시 등의 시험 맞춤형 강의를 배제한다. 학과 교수진 구성을 보면 법학, 경제학, 철학, 행정학, 정책학, 영문학, 국문학 등 다양하다. 시험 준비로 급급한 강의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을 아는 학생을 가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국문학 전공 교수는 재학생의 글쓰기 실력, 영문학 전공 교수는 재학생의 국제 융합 능력을 늘리는 데 주력하며 인문학적인 리더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NO!

P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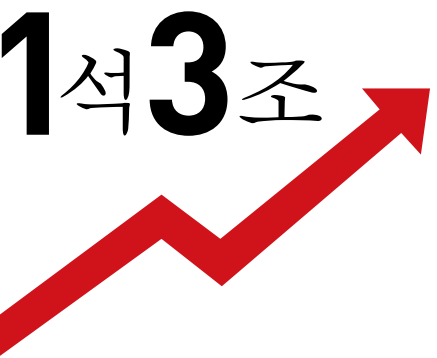
사회과학 분야를
아무지게 비비다

PPEL은 Philosophy 철학, Politics 정치학, Economics 경제학, Law 법학을 접목한 정책학과만의 교육과정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오랜 전통인 PPE 과정에 법학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 권력, 경제를 상호 연계해 이해시킨다. 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과정이기에 진로를 어느 분야로 선택하든 든든한 기반이 된다.



동아리에서 배우고 즐기자!
학구적인 친구들이 모인 곳이자라 정책학과에는 학구적인 동아리가 많다. 모의 협상과 이론 스터디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테이블 협상 연구회', 사회·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법사회학회', 형사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형사법학회', 지적재산권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지적재산권법학회', 아시아 법학회 연합 동아리 'ALSA'가 대표적이다. 이에 질세라 꽃다운 청춘을 한껏 즐기는 동아리도 눈에 띈다. 록 음악을 하는 밴드 동아리 '락당', 민중가요를 부르는 '소리받이', 축구 동아리 '레알왕십리드', '로스', 야구 동아리 '루키즈' 등 학생에게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선물해준다.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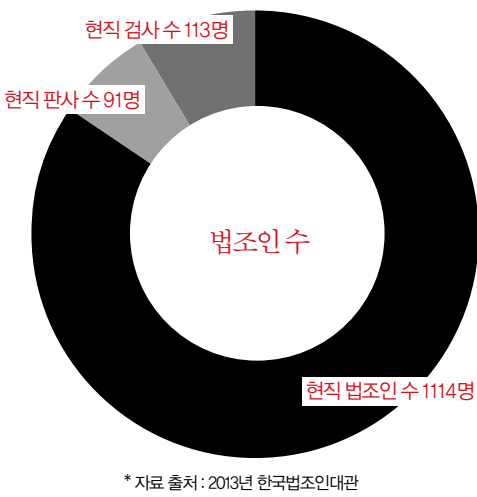
UPPS, 연합 정책학술제로
경험 UP, 인맥 UP, 능력 UP
UPPS(University Public Policy Society)는 공공정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한양대 정책학과,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가 연합해 진행하는 정책학술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사회의 이슈를 법,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본다. 연합이다 보니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서로의 지식을 탐하고 친분을 쌓으며 능력을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갖는다.

ROMANTIC

낭만, 낭만적인 학과 행사
'꽃 피자 술이 익고 달이 밝자 벗이 왔네' 정책학과와 축제는 다른 학과와 사뭇 다르다. 정책학과가 5월이면 시행하는 한마음 축제에는 언제나 시적인 주제가 달린다. 모든 학과 행사가 그렇다. 지난 종강잔치에는 '그대와 더불어 보낸 한 해, 만 권의 독서에 비할까'라는 시적인 제목으로 낭만을 잊지 않은 대학생활을 표현했다. 이날 종강식에는 교수님을 필두로 학생에게 어떻게 독서를 하고 글을 써야 할지 배우는 의미 있는 특강을 갖기도 했더니 정책학과와 매력이 뽐낼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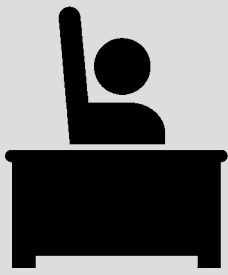
40+5

자랑스러운 동문 법조인의 수
5년여 된 정책학과는 로스쿨이 들어서며 사라진 법대 40년의 명맥을 잇는다.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명망 있는 법조인을 배출한 한양대학교 법대. 그 높았던 명성만큼 현직에 있는 한양대학교 출신 법조인의 수는 높고 찬란해 법조인을 꿈꾸는 정책학과 학생들의 든든한 선배 역할을 자처한다.



방과 후 특강으로
꿈을 서포팅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행정고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로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소규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반 우선 선발권과 고시과목 특강 청강권을 부여해 학생의 원하는 꿈을 든든히 지원한다. 만약 정책학과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입학했을 경우 장학금 우선 선발이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After School



꾸준한 봉사활동 교수님도 함께해요
정책학과 교수와 학생 50여 명 함께하는 꾸준한 봉사활동. 한양대학교의 건학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기반으로 한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이다. 봉사에는 크게 교육 봉사와 사랑의 집짓기가 있는데 무엇이든 아무리 어렵고 만만치 않아도 보람찬 하루에 웃음꽃이 절로 난다.

50

사맛길 포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다
지난해 4회를 맞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자유포럼인 사맛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과 지식을 나누는 포럼이다. 창의적인 생각을 남과 공유하고 고민하는 즐거움에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학과 학생의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재학생들은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식을 고루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4회



정책학과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정책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정책학과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커리큘럼과 수업 분위기 그리고 선후배 관계까지 정책학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쳐본다. 에디터 송유진 | 글 객인해(학생기자) | 사진 최재인

정책학과 교수님은 간간하고 매정하다?

이호용 교수 정책학과만큼 교수와 학생이 가까운 학과는 없을 거예요. 교수 연구실의 문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학생들이 삼촌 만나러 오듯이 연구실에 와요. 학생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다른 학과 친구 중에는 교수님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고요. 정책학과는 달라요. 초임 교수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는 편입니다.



이호용 교수

최원배 교수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중간고사 전후로 면담을 해요. 학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자주는 아니지만 학생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날도 있어요. 2년 전에는 행원파크에서 와인 파티를 했고 매년 축제 때마다 정책학과 주점을 찾아가서 학생들과 어울립니다.

박준형(13·정책학과) 학생들이 교수님을 자주 찾아가요. 교수님께서도 학과 행사에 자주 참여하시는 편이고요. 새터에도 오셨고 엠티에도 찾아오셨어요. 특히 '정책인의 밤'은 교수님과 허물없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같이 술도 마시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죠. 여기서 민찬홍 교수님을 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대학 시절 학교의 3대 천재로 불렸다고 들었는데 폭탄주를 마시고 계셨죠. 저희도 한 잔씩 얻어 먹었어요.

이유경(13·정책학과) 최원배 교수님께 감동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아닌데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신 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연히 마주치면 먼저 안부를 물어주시고 찾아가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세요. 다양한 길을 알려주시고 잃어버린 만큼 채워 추천해주시고요. 교수님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학생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정책학과 커리큘럼에는
깊이가 없다?

로스쿨이나
행정고시만을 위한 학과다?

정책학과는 선배가 부족하다?

최원배 교수 정책대학은 법과대학을 이어받은 곳이에요. 법과대학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모아 설립한 학과죠. 더군다나 멘토 프로그램은 정책학과만의 특징입니다. 관계나 법조계 등 사회의 리더를 초빙해 학생들과 연결해주죠. 강의 형태로 동문을 섭외하는 곳은 많아요. 정책학과처럼 직접적으로 선후배를 연결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이재서(13·정책학과) 행정고시, 법조계, 언론 등으로 팀을 지정해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이 직접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죠. 저는 올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선배를 멘토로 삼았어요. 결연식에서 처음 뵈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어떤 계열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성석진(13·정책학과) 동아리는 정책학과 인맥의 중심지예요. 보통은 중앙 동아리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학과는 학과 내 동아리가 더욱 활발해요. 법대에서부터 이어진 동아리가 많아서 법조계 선배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피드백이나 조언을 구하기가 쉽죠. 제가 한양대 정책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선후배 사이가 돈독하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최원배 교수



이유경

이호용 교수 다양한 학문을 두루 배우기 때문에 진로 가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점에서는 다른 학교 자율전공학과와 일치합니다. 공기업 취직이나 언론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도 많이 만났어요. 지난 학기 졸업생 중에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 취직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자신의 적성을 살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경우죠.

최원배 교수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 나가면 낡은 지식으로 취급받는 시대잖아요. 공학 계열마저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이므로 우리 대학은 비교적 빠르게 대안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13·정책학과) 저는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입학했어요.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꿈을 찾고 싶었죠. 결과적으로 제 선택에 무척 만족합니다. 적성과 흥미도 모른 채 특정 학과에 들어갔다면 벌써 지쳤을 거예요. 여러 학문을 접한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공부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원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이 글을 보는 수험생 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다양한 학문을 접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석진(13·정책학과) 알고 넓게 배우는 것 같다며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얕은 수준은 아니에요. 정책학과와 커리큘럼은 학과 수업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게끔 설계됐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학과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편이니까요. 다른 학과는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전공을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정책학과는 달라요. 학과를 믿고 꾸준히 공부하면 어디든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김소희

최원배 교수 로스쿨이 들어서면서 많은 학교에 자율전공학부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후퇴하는 추세예요. 우리 학교는 자율전공학부 대신 정책학과를 세웠습니다. 타 대학의 유사 학과와 견주어보면 우리 학교 정책학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학과 설립 초기부터 전임교수를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호용 교수 전임교수를 뒀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 대학 유사 학과의 경우 겸임교수를 강단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학과만을 담당하는 교수 없이 기존의 법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가 강의만 담당하는 거죠. 우리 학교 정책학과는 처음부터 전임교수를 채용했습니다.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정비한 것이죠.

박준형(13·정책학과) 다른 학과 학생에 비해 편하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과 수업을 어렵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과목을 동시에 배우는 것이 개별 학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법학만 전공했다면 법전과 판례를 외우는 공부밖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와 역사를 함께 배우면서 법을 폭넓게 이해하게 됐어요. 역사는 법과 경제를 동시에 바꾸니까요. 덕분에 사고력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죠.

성석진(13·정책학과) 학창 시절부터 로스쿨 진학을 꿈꿨어요. 그래서 법학 강의에만 관심을 가졌었죠. 하지만 정책학과에 입학하면서 다른 학문에도 흥미가 생겼어요.

특히 경제학을 배워두니 쓸모가 많더라고요. 요즘 경제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많고, 자격증을 준비할 때도 훨씬 수월해요. 공인회계사(CPA)의 경우 경제와 회계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관련 전공이 아닌 이상 다른 학과 수업을 일부러 찾아 들어야 하잖아요. 정책학과는 경우 커리큘럼에 경제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자격 조건을 채울 수 있어요.



성석진



이재서



박준형

정책학과 친목의 중심지 동아리 열전

수재들이 모인 학과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정책학과 학생들은

종종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유행 지난 옷을 걸쳐 입은 내성적인

공부벌레'일 거라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학생들은

실력과 미모는 물론 재치까지

두루 갖춘 멀티형 인재였다.

정책학과 학생들에 대한 오해를

단번에 풀어줄 만큼 톡톡 튀는

개성과 젊은 에너지로 무장하고 있다는

리더들을 소개한다.

에디터 송유진 | 글 박민해(학생기자) | 사진 최재인



몸으로 부딪히며 스트레스 풀어요

김형곤 | 13학번 · 축구부 'LAWSA' 주장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끼리 뽄뽄 뭉쳤다는 정책학과 축구부 '로사LAWSA' 로사의 주장 김형곤 학생에게 실력이 어떤지 묻자 "음, 저희는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라고 대답한다. 한양대 법대에서 계승된 축구 동아리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주말 경기를 한다. 공부는 체력 싸움인 만큼 축구로 자신의 건강을 챙긴다는 김형곤 학생은 "시원하게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공부에 집중하기 쉽다"며 축구예찬론을 펼쳤다. 로사의 최대 강점은 끈끈한 선후배 관계다. 이미 졸업한 선배들도 주말 경기는 꼭 찾는다고, 함께 경기를 하고 나면 다가서기 어려웠던 고학번 선배에게도 형 소리가 절로 나온다. 운동에는 라이벌이 있어야 하는 법. 현재 정책학과와 숙적은 파이낸스 경영학과다. 매년 학과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 'P&F컵'을 개최하는데 지난해 축구 경기에서는 정책학과가 승기를 잡았다. 김형곤 학생이 이끄는 정책학과 축구부, 그들의 다음 세러머니가 궁금하다.

민중의 삶을 노래하리

정영경 | 13학번 · 밴드 '소리받이' 리더

'소리받이'는 삶을 노래하고, 한을 읊는 정책학과 유일의 민중가요 밴드다.

매년 5월 대동제에서 공연하며, 11 월에는 정기 공연을 하는 등 공연 활동에도 열심이다. '대거리'는 소리받이만의 전통으로 공연에 앞서 노래에 대한 의견과

감상을 나누는 자리다. 소리받이의 리더 정영경 학생은 정책학과 동아리

홍보식에서 소리받이를 접하고 마음을 빼앗겨 가입하게 됐다. 민중가요에서

예상치 못한 외의의 감동을 느꼈던 것. 민중가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라는 게

정영경 학생의 생각이다. 이른바 '폐창'은 민중가요만의 매력이라고.

고정 배역이 없어서 매번 새로운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소리받이는 전형적인 민중가요에 화음을 추가하여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냈다.

"민중가요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정영경 학생이

20대 청춘의 삶과 고민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할지 기대가 된다.



music

들어는 봤나? T자형 인재!

나인우 | 13학번 · 학술동아리 '법사회학회' 학회장

'법사회학회'는 시사 이슈를 법적·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동아리로 한 달에 한 번 토론회를 연다. 법사회학회의 목표는 T자형 인재다. 전공 수업을 통해 T자의 기둥 부분 'I'자를 완성했다면 토론회를 통해 넓은 시야를 갖춘다. 그래서 넓게 보라는 의미의 '—'자다. 토론회는 매우 치열하다. 선후배를 막론하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뜨거운 토론 뒤에는 뒤풀이가 이어지는데 못다 한 이야기를 하느라 열기는 더욱 후끈해진다. 매년 열리는 학술제는 법사회학회의 최대 행사인 만큼 행사 한 달 전부터 밤을 지새우는 일이 태반이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어색했던 친구와도 가족 같은 사이로 발전하기에 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강조한다. 학회장인 나인우 학생은 올해부터 새내기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도록 학회를 개편했다. 자신의 관심사를 주제로 삼으면 더욱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이슈가 나타날지 신문을 넘기는 나인우 학생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다. 